

2018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한-아세안 관계와 신남방정책

김영선

한국은 1989년 아세안(ASEAN)과 공식 대화관계를 맺은 이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및 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아주 가깝고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 왔고, 2015년 말에는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킴으로써 가장 역동적인 지역협력체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천명했다. 이러한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과거의 정책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과거의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해 본다.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정세는 미중·중일 등 강대국간 경쟁, 중국의 영향력 제고, 미중 무역전쟁, 자국 중심주의 경향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질서 개편 과정에서 중견국(middle-power)으로서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Belt and Road Initiative) 등 역내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 것인지 살펴본다.

또한 아세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뿐 아니라 인도(Act East Policy), 호주, 대만(New Southbound Policy) 등도 아세안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 정책들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 이들 정책들과의 접점과 아울러 차별화된 정책방향을 모색해 본다.

직업 외교관 출신인 김영선 연구원은 주인도네시아 대사 및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한-아세안관계 및 동남아시아 정치를 연구 중이다. 김영선 대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석사학위(정치학)를 받았다. 현재 일간지에 '김영선의 ASEAN 톺아보기'란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12:00-13:00

장소: 아시아연구소 (101동) 406호